

組織은 人才가 아닌 人材가 필요하다

이 종 화

우리 협회 교육홍보부장

職員の 일반적인 능력조건의 3대 요소인 知識, 機能 및 態度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가?

人才와 人材-人才는 재주가 많은 사람이며 人材는 지식과 능력이 있고 인품이 남달리 뛰어난 사람이다. 우리 주위에는 재주와 기능은 있으나 태도와 인격면에서 문제가 많은 사람을 보게 된다. 이런 “재주꾼”은 오히려 직장생활에 실패하고 조직에 공헌하지 못하게 된다.

人材는 인간재목으로서 조직이 바라는 사람ियो, 특정직무를 맡길 때 그 직무를 잘 수행하는 지식, 기능 및 태도를 갖추고 있는 일꾼을 말한다.

인간에 대한 평가는 단시간내에는 곤란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人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고 봄으로써, 어느 정도 부족하더라도 지속적인 人材開發과 육성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조직이 원하는 人材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무장하여야 할 근본적인 정신자세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成就의인 직업의식에 투철한 정신과 태도이다. 직원은 먼저 이러한 정신적 무장이 필요하다. 이것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근거이며 바탕인 것이다.

성취적인 직업인-성취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조직이 바라는 직원상의 불가결한 요건이다.

성취인은 일을 가치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에 대한 철학과 신념이 확고한 사람인 것이다.

「인생의 비결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좋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자기가 택한 일, 즉 직업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확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또한 성취인은 자기 일에 대한 긍지와 꿈을 가지고 적당한 모험과 꾸준한 도전을 하는 사람이며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안다.

그리고 성취인은 새로운 일에 대한 정열과 탐구를 게을리 하지 않으며 일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남보다 먼저 추구하면서 미래를 중요하게 여김과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이다.

職場人으로서의 프로의식-직업의식과 직장의식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PROFESSIONALISM이다. 즉 프로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확고한 召命的 직업관과 주체적인 직장의식을 지닌 직원으로서 조직을 자기 생애의 중요한 부분과 가치로 인정하는 기본적인 정신자세가 PROFESSIONALISM의 출발인 것이다.

그렇다면 프로정신이란 무엇인가?

첫째, 자기가 맡을 또는 맡은 직무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정신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자기 직무수행에 있어 100%를 추구하는 근성이 필요하다. 현대의 사회와 조직은 적당주의나 안일주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100%를 지향한다는 것은 또한 마지막 1%를 더 중시하는 값진 정신이다.

셋째, 全力投球하는 자세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직장생활은 상대적인 것이다. 야구에서 투수가 투구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넷째, 이와 같은 프로정신을 구현하는 현장이 바로 직장이라는 철저한 직장의식이 중요하다. 직장의식은 곧 주인의식을 말한다. 직장의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Do it now & here!」의 정신이다.

성실한 일꾼이 되어야-R. W. EMERSON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가 되고, 결코 부담스럽고 고되게 만들지 말아라」고 말하였다.

조직에 꼭 필요한人材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조직의 인적인 財産으로 인정받아야 한다.人材가 됨과 동시에 조직의 人財로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